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興國農産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지리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과 품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마음 가는대로 바늘 움직여요”

## 산문박의 禪 자수장 한상수 씨

평생을 오로지 우리나라 전통자수(刺繡)의 맥 잇기에 바쳐온 한상수씨(68·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전)의 삶은 마치 깨달음의 경지를 향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수행자의 그 길과 맞닿아 있다.

그는 자수에 바늘 들어놓은 이후 한시도 전통자수 복원에 대한 발원을 놓아 본 적이 없다. 설계조차 어려웠던 시절에도, 아이를 낳아 등에 업고 다니면서도 그녀는 실재는 법 하나, 열매라는 법 하나 놓치지 않으려 시골 할머니의 수를까지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 전통 자수의 복원 그것은 평생의 화두였고, 오늘도 그를 잊지 한 원천이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그는 아직도 수틀앞에 앉는 것을 거르는 날이 없다. 바늘에 실을 끼워 한뼘 한뼘 수백 수천번을 움직여 심리안상의 대역사를 수틀에 빛어낸다. 작은 보자기에서부터, 노리개, 주머니, 병풍, 수갑(繡佛)에 이르기까지 바늘과 실, 그리고 지극한 정성과 심미안으로 자수를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다. 단조로운 면에서도 복잡한 작업이고 긴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에게 있어 수놓는 일은 마치 밥먹고 잠자는 일상사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심으로 자수 자료를 수집하다가,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자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시대 작품의 대부분이 수불(繡佛)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수불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한상수씨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신명을 바쳐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 밤낮을 구분하지 않은채 온 정열을 작품에 쏟고, 숨어있는 옛 자수를 찾기위해 꾸준히 자료를 모은다. 대만 일본 등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에서 고유한 기법과 문양을 발견하여 정리해 그동안 《기초자수》(이조자수) <총론> <수불> 등의 저서를 편찬하기도 했다.

그가 전통자수의 맥을 잇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미술시간에 모란꽃 무늬가 박힌 귀주머니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되었다. 어린 나이에 어려운 조선후를 놓는 그를 담임선생님이 크게 격려했고, 일찍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그는 17세때 고향인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본격적인 자수공부를 시작했다. 광화문을 지나다가 전통대에 ‘자수감습, 기술자 구할’이라고



한뼘한뼘 정성 쏟다보면  
어느덧 무념무상의 세계  
수틀엔 삼라만상 드러나

81년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자리수기법 복원 전통수 맥이어



작성 광고를 보고 찾아간 어느 수예실에서 “자수를 평생공부하고 싶다”는 한마디가 자수 연구가 故 조경호씨(전 이화여대교수)를 은사로 모시게 되는 큰 인연이 되었다. 그로부터 20년간 조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자수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수의 외길을 한눈 팔지않고 걸어 왔다.

“84년 자수부문에 첫 인간문화재로 지정 받고는 위암으로 돌아가신 선생님께 유물로 남기신 바늘 한쌍을 받고 영영 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으셨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터니까요. 지금도 마음먹고 큰 작품을 할 때면 선생님이 주신 바늘을 사용합니다.”

일찍 보기에 자수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천 선택, 도안본 그리기, 실 준비하기, 실 열색하기, 수 기법 정하기, 수 놓기 까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만 놓았다고 또 다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를 다 놓은 후 면지를 털고, 실밥을 정리하고 뒷면에 풀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풀이 마르면 뜨거운 김을 쏘여 잘 펴고, 다시 그늘에서 하룻밤 동안 말려 수 속에 숨기가 없게 완전히 건조한 다음 액자나 주머니 등 원하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다.

“처음 초보때는 오로지 굵고 매끄러운 수 놓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자수 기법과 터치도 새로워지고, 완숙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바늘끝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거침없는 바늘이 나와 천을 들고 실을 움직이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수는 손으로만 놓는 것이 아니라 천을 터득하게

되는 거지요. 마음 가는대로 바늘이 움직이고, 마음에 한점 흐린 구획이라도 있으면 자수에 그게 나타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수의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로 오늘의 일가를 이룬 자수장 한상수씨, 바늘에 실을 끼워 한뼘 시작한 자수는 뒤로 가는 후퇴란 없다. 후퇴할 수 없기에 한뼘 한뼘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듯 한씨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한다. 되돌아 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렇기에 인생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사는 방법을 자수에서 배워기를 바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수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보고, 학문으로 보려는 데는 인색합니다. 자수는 성유와 실과 열색, 도안, 형태 구상 등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종합예술입니다. 기술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저는 남은 세월을 우리 전통자수를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완성하는데 바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 자수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아 늘려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매년 자수국제교류전도 열어 세계 곳곳에 우리 나라의 전통수를 계속 전할 생각입니다. 내가 만든 수가 하나라도 영원히 남는다면 이 험한 시대를 살아온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내년 3월 천3백여년전에 백제인과 고려인의 지도로 완성돼 현재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는 ‘현수국인다라수상’을 보러 일본에 간다. 민간인에게 그것도 자국민이 아닌 타국인인 한씨에게 자기나라의 최고국보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한상수씨를 세계적인 자수의 대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수씨는 대가의 눈으로 우리나라 전통수의 특징을 살피고, 그 또한 자수법으로, 작품으로, 책으로 남겨 후대에 남길 것을 지금 구상중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이천시 관고동에 위치한 마애상은 유래가 드문 고려시대 조사상이다.

### 마애불을 찾아서

영월암 마애조사상

크고 뚜렷한 상호서 고승의 체취  
두손 가슴에 모아 설법하는 모습

이천시 관고동에 위치한 이 마애불은 자연 암석을 다듬어 그위에 조각한 승려상이므로 육체가 아닌 민머리를 보여줌에 원만하고 둥근 얼굴에 상호가 크고 뚜렷하게 조각되었다. 지그시 감은듯한 눈과 굵직한 코, 두터운 입술 등의 상호에서는 힘차고 후학한 고승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목에도 심도의 표시가 있고 두손은 가슴에 모아 엄지와 약지를 맞대 설법하는 모습이다. 왼쪽 어깨를 감싼 우견연단의 가사는 물 전체의 유연한 사선을 그려며 흐르고 끝단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마무리져 있다. 이러한 옷주름선은 그다지 번잡하지도 간략하지도 않은 소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조사상의 심비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대하고 힘찬 솜씨를 보이고 있는 이 조사상은 고려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애조사상은 영월암의 창건조사 혹은 이 사찰과 인연이 깊은 나한이나 고승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유래가 드문 고려시대 마애조사상인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글·사진=불자대학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송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백을 자란다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지엔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에 새겨서 상용화(실용신안등록 No.0066호) 했다. 전량통과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신비로 운집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 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대한 유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감각코팅함으로써 벗겨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봉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면에 원하는 사신, 그림, 글씨, 부처, 이음 등 어떠한 문양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장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형 두께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량주문 필수로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정선 달마도를 고급 프구액자(22cm×32cm)와함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대형 유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1만원, 3개(세트): 2만원에 판매

● 유사제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처: 한국 지.엔.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 영일점 모집